

DOOSAN ART SCHOOL

두산아트스쿨: 공연

신유청

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

2022.8.12(금) 오후 2시 두산아트센터 연강홀

두산아트센터

교육 프로그램

문화예술에서부터
인문학에 이르기까지
매년 다양한 주제로
교육 프로그램을
운영하고 있습니다.

두산인문극장: 강연
두산아트스쿨: 미술
두산아트스쿨: 공연
두산아트스쿨: 창작
워크숍

질의응답 오픈채팅

(‘두산아트스쿨:공연’ 검색)

비밀번호 dac2022

운영시간: 13:30~15:30



저와 맞지 않을 것 같은 작품이나 낯선 프리덕션에 참여하면서 연출로서 어려움과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 어떤 성과를 발견했고, 그 이후 익숙함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낯선 배우들, 낯선 창작진들을 만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
이런 작업을 만나기 전에는 대본에만 집중하고 대본을 후벼 파는 일을 했다면, 이제는 대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, 대본 주변에 놓인 땅을 채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. 저는 작품 해석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, 그 방향성에 맞는 창작진(스태프, 번역가, 배우)들은 전문적인 재능으로 작품을 매우 구체적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연출의 시선은 훨씬 넓어지고, 창작진들은 어마어마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. 연출가의 개입을 지적질이 아니라 왜 디렉션(Direction: 방향)이라 부르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.

제가 했던 작품 <그을린 사랑>이나 <와이프>, <엔젤스 인 아메리카> 등에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<그을린 사랑>의 잔느와 시몽처럼 등을 맞대는 대신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. 우리가 하는 일이, 내가 혹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꿈을 꾸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신유청 연출가

연극 <빈센트 리버><엔젤스 인 아메리카><와이프><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>
<그을린 사랑><녹천에는 똥이 많다> 외

*다른 관객을 위해 강연 중

질문은 자제해 주세요.

*코로나 19 확산 방지를
위해 대면 질의응답은
진행하지 않습니다.

수상

2020년 제 5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백상연극상 <그을린 사랑>

2020년 제 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<그을린 사랑>

2020년 제 56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<녹천에는 똥이 많다><와이프> 외

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